

6·13 지방선거 간호사 14명 당선

광역의원 지역구 3명 - 기초의원 지역구 6명 - 기초의원 비례대표 5명

광
역
의
원구경민
부산시의원원미정
경기도의원남영숙
경북도의원현재 당선인 자격
7월 1일부터 의정활동 시작기
초
의
원이순영
서울 동대문구의원성경미
부산 기장군의원이미경
경기 수원시의원이규화
경기 이천시의원박남주
충남 천안시의원허남영
충남 계룡시의원한경혜
서울 강동구의원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최옥술
대전 유성구의원제갈임주
경기 과천시의원유재동
전북 익산시의원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간호사 14명이 당선했다. 광역의원 의원 3명(지역구)과 기초의원 의원 11명(지역구 6명, 비례대표 5명)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간호사 31명, 간호대학 졸업자 및 간호대학생 2명 등 총 33명이 출마했으며, 선거결과 간호사 14명과 간호대학 졸업자 1명이 당선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에서도 간호사 1명이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및 2016년 재보궐선거에서는 간호사 34명이 출마해 22명이 당선된 바 있다.

이번에 광역의회 시·도의원으로 당선된 간호사는 다음과 같다.

△구경민 부산시의원(부산 기장군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원미정 경기도의원(경기 안산시제8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남영숙 경북도의원(경북 상주시제1선거구, 자유한국당).

기초의회 구·시·군의원으로 당선된 간호사는 다음과 같다.

△이순영 서울 동대문구의원(서울 동대문구가선거구, 자유한국당) △성경미 부산 기장군의원(부산 기장군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미경 경기 수원시의원(경기 수원시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규화 경기 이천시의원(경기 이천시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남주 충남 천안시의원(충남 천안시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하남영 충남 계룡시의원(충남 계룡시가선거구, 자유한국당) △한경혜 서울 강동구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최옥술 대전 유성구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재동 전북 익산시의원(비례대표, 정의당).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이번 당선으로 3선 의원이 됐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은 상주시의원으로 3차례 당선된 바 있으며, 이번에 도의원에 도전해 성공했다. 이순영 서울 동대문구의원, 이미경 경기 수원시의원, 박남주 충남 천안시의원, 하남영 충남 계룡시의원, 제갈임주 경기 과천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초선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 꾸준히 정당활동을 해오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왔으며, 이번 첫 도전에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당선인들의 연령은 38세부터 65세 까지 다양했다.

간호사 당선인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10명(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8명), 자유한국당 3명(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 정의당 1명(기초의원) 등이다.

지방선거 당선인들은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간호사 당선인들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생 현장을 밟고 뛰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을 챙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간호사로서, 여성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갖고 반듯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재선 또는 3선에 성공한 당선인들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뛰겠다”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시도간호사회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출마한 간호사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고 응원했다.

정규숙 기자 ksung@koreanurse.or.kr

간협, 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 개최

“당선인들, 간호협회 성원 큰 힘이 됐다”

간호사 정치인 모델될 수 있도록 반듯한 의정활동 약속

대한간호협회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인 축하연을 개최했다.

축하연은 6월 18일 오후 5시 롯데호텔서울 에메랄드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간호사 당선인들과 대한간호협회 임원,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호사인 죄영희 전 국회의원, 이애주 전 국회의원, 정영희 전 국회의원과 윤종필 현 국회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신경립 대한간호협회장은 흰영사를 통해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영예로운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분께 간호계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여러분은 간호사로서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 전문지식과 경험, 성실함과 세심함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

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국민들이 보다 행복해지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대한다”면서 “간호계와 함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정책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죽사를 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당선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지나왔는지 잘 알기에 참으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면서 “앞으로 서로 힘을 모으고 협력해 국민건강과 간호가 나아갈 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립 간호협회장이 간호사 당선인들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했으며, 당선인들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협회가 있

어 든든하고 큰 힘이 됐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구경민 부산시의원은 “그동안 부산시 간호사회에서 응원하고 격려해줘 큰 힘이 됐다”면서 “앞으로 간호사들의 부당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순영 서울 동대문구의원은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선거에 임했다”면서 “재선이 된 만큼 좀 더 여유를 갖고 주위를 돌아보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경기 수원시의원은 “훌륭하신 간호계 선배님들의 족적을 따라가다 보니 이 길에 이르렀다”면서 “반듯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화 경기 이천시의원은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지방선거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열었다. 당선된 간호사들과 간호협회 대표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지방선거에 4번 도전했고, 이번에 당선됐다”면서 “정치에 진출하는 간호사의 표본이 되고 싶고, 지역사회에서 진취적이며 정의적이며 도전적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경혜 서울 강동구의원은 “지역사회 간호사로 일하며 보건과 복지를 접목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항상 현장에 몸담으며 새로운 길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다.

반미선 인천 남동구의원은 “지역주민

사하고 현신한 마음을 알아주신 결과인 것 같다”면서 “발로 뛰며 일하고, 간호사의 위상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최옥술 대전 유성구의원은 “온전2동

동장을 지내면서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토대가 됐다”면서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주민들을 위해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뛰고, 간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동 전북 익산시의원은 “그동안 여성농민운동에 힘을 쏟았고, 늘 어려

운 사람들과 함께 살고자 노력했다”면서 “변치 않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해 시정을 옮기는데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호사들의 부당한 처우개선에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인들의 인사말이 끝난 후 ‘간호 정책 현안’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이윤정 정책전문위원이 설명했다. 축하 캐이크 자르기에 이어 죄영희 전 국회의원이 당선인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건배를 제의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을 함께 하며 환담했다.

정규숙·최수정 기자